



정교회주보

제2530호
2025년 6월 22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마태오 제2주일
성 에브세비오스 사제순교자
(제1조 • 조과 복음 2)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1조 부활 찬양송 81
- 순교 사제 찬양송 84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85
- 사도경 : 로마 2,10~16 ..(봉) 124
- 복음경 : 마태오 4,18~23 108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영광과 명예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로마 2,10)

사진 설명

주교좌

주교좌(사진)는 전통적으로 본당 남쪽 앞부분에 자리하고 있다. 초대 교회 때부터 존재해 왔으며, 보통 나무나 대리석으로 제작한다. 십자가나 비잔틴 문양 등 다양한 상징이 조각되어 있다. 뒷면에는 대사제이신 그리스도의 성상이 모셔져 있는데, 이는 주교의 권위는 그리스도에게서 오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교좌는 교회 조직과 전례, 신학적 상징성, 사도직 전승과 전통의 계승 등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즉, 주교의 사목적 권위와 교회 일치의 정점을 이루며, 교회에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영적 지도자임을 공식적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이 자리에 착좌하는 주교는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교리를 가르치며 성찬예배나 주요 전례에서 신자들에게 축복하고 설교를 하며 전례를 인도한다.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

한의종 알렉산드로스 신부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주님과 당신의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주님도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그분을 믿고 경건하고 정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고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주님을 멀리하며 주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그들과 더불어 어울리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 말만 하고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 등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세상에 천사들을 거느리고 다시 오실 때 그들을 모른다고 외면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루가 8,19-21)

주님의 진정한 형제요 부모는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속적인 것을 더 사랑하고 사람들을 의식한다면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잃어야 하고 무엇을 얻어야 합니까? 세상은 잠깐이지만 주님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차갑고 어두운 고통의 세계에서 영원히 비참하게 보내게 된다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주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걸 볼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디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만유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경시한다는 것은 곧,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포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어 당신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셨고 축복받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가까이하여 사랑하고 가꾸고 보전합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끄럼 없이 복음을 전하여 주님께 떳떳한 자녀로서 인정받도록 합시다.

영적인 용수로(用水路)의 필요성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미국의 남서부 지방을 운전하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넓고 혹독한 환경을 가진 사막 지대를 수 킬로미터 동안 지나게 되는데, 그런 곳에는 아무런 것도 없이 다만 바짝 마르고 매우 건조한 땅이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유일하게 눈에 띄는 푸른 식물은 선인장과 작은 관목(灌木: 키가 작고 덤불을 이루며, 원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아 밑동에서 가지를 많이 치는 나무. 무궁화, 진달래, 앵두나무 따위)들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푸르고 비옥한 지대를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는 모든 종류의 과일나무와 채소들이 풍부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두 지역을 이토록 다르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관개(灌漑: 농사를 짓는 데에 필요한 물을 논밭에 댐) 시설’ 또는 용수로(농업, 공업, 수도 등 인간의 경제 활동을 위해 물을 끌어들이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로)라고 하는 기술이 이룬 기적 탓입니다.

사막으로 힘차게 쏟아지는 물이 식물을 살게 하고, 땅은 풍부하게 작물을 생산해낼 수 있는 푸르름이 우거진 곳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관개 시설’이나 ‘용수로’를 교회의 선교가 지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가져다주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며,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없는 가장 절망적이고 메마른 지역에게까지도 빛과 사랑, 진리와 평화, 이해와 연민과 동정의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변모시켜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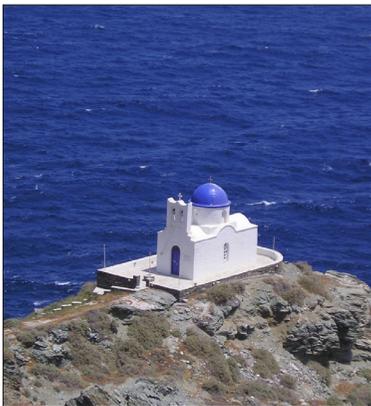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우리의 말과 본보기와 섬김의 행위로서 목마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힘써야 하며, 이를 통해 구원에 필요한 영적인 열매가 모두를 위해 피어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간 예배 안내

* 6월 24일(화)

세례자 요한 탄생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 울산 성당 세례 성사

지난 13일(금), 슬라브인 니승 아 알리시아 유아의 세례 및 견진 성사가 박인곤 요한 신부의 집전으로 거행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도움으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정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길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

■ 제11회 한일 NCC 협의회

지난 11일(수)부터 13일(금)까지 제11회 한일NCC 양국협의회(주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일본 그리스도교협의회)가 ‘평화와 화해의 사도로서 교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한국기독교교회관 등에서 진행되었습니다.

NCKK 회장이신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개회식 때 환영사를 전했고, NCKK 국제협력선교위원인 조경진 예레미야 신부는 여러 토론과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알림

■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 3주기 추도식 및 철야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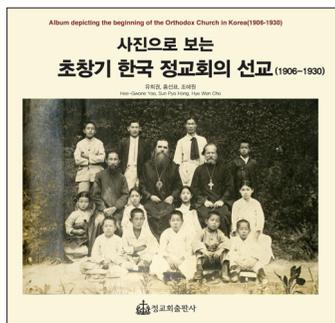
지난 13일(금)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로만 대신부, 임종훈 안토니오스 신부, 크리스토퍼 보제 집전과 45명의 신자(서울, 전주) 참례로 소티리오스 대주교님의 안식 3주기 추도식과 철야예배가 거행되었습니다.

저녁 8시에 대주교님 묘소에서 트리사기온이, 이어서 성당에서 오순절 종례 대만과와 아르토클라시아 의식이 있었습니다.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성삼위께 드리는 기도"의 깊은 의미"를 주제로 설교하며, 이 기도를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드릴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참례자들은 예수기도를 차례로 드렸습니다. 이어서 조과, 성찬예배, 추도식이 거행되었으며, 예배 후에는 안식 3주기 추모 팸플렛과 안디도로, 아르토클라시아 빵이 나누어졌습니다.

14일 오전에는 임종훈 안토니오스 신부와 크리스토퍼 보제 집전으로 제1시과가 거행되었고, 이어서 오찬을 나누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철야예배 준비를 위해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영원히 기억되실 소티리오스 대주교님께서 우리를 위해 항상 중보해주시길 기원합니다.

■ 신간 소개

사진으로 보는 초창기 한국 정교회의 선교(1906-1930) | 유희권, 홍선표, 조혜원 공저 | 정교회출판사 | 208쪽 | 50,000원



한국 정교회가 초창기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일면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진 앨범(1906년-1930년의 사진들)과 그 앨범에 대한 논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앨범 속 사진을 수집한 이는 러시아 사제 페오도시 페레발롭으로, 1906년에 처음 한국

에 도착하여 1930년까지 선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앨범에는 총 90여 점에 달하는 사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진은 20세기 초 한국(주로 서울)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데, 한국인, 러시아인, 성직자, 평신자, 정교회 선교회의 활동뿐만 아니라, 서울의 거리와 건물, 궁궐, 광화문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함께 수록되는 세 편의 논고는 앨범의 발견 경위, 당대 한러 관계, 한국 정교회의 역사 개관에 대해 설명합니다.